컨벤션산업을 키워야 한다

컨벤션산업의 개념 및 경제적 중요성

○ 컨벤션산업의 개념

- 컨벤션은 '정보, 지식, 상품, 서비스를 교류하고 토론하기 위한 만남의 장으로 각종 전시회, 이벤트 등이 부가되는 행사'를 지칭함.
- 컨벤션의 개념이 초기의 회의와 전시회 중심에서 박람회, 이벤트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회의산업'(CEMI; Convention, Exposition, and Meeting Industry)으로 명명되기도 함.
- 컨벤션산업은 컨벤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컨벤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함.

○ 컨벤션산업의 성장배경

-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및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보와 지식을 교류할 수 공공의 장(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교통·통신·멀티미디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이 초고속 항공기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여행시간을 단축시켜 해외여행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통신 및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공적인 컨벤션의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 호텔 및 관광산업의 발달이 컨벤션산업을 위한 기반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동반상승 관계에 있는 컨벤션산업의 수요를 유발하고 있음.

○ 컨벤션산업의 중요성

- 컨벤션산업은 고용 및 관광수익 증가, 국가·도시의 이미지 제고 등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미치는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종산업을 부상하고 있음. 이는 컨벤션 시설, 호텔·관광, 숙박·식음료, 교통·통신, 문화, 어메니티 및 환경 등이 어우러져 관련산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컨벤션 산업의 속성에 기인.
- 정치·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컨벤션을 개최함에 따라(특히 정상이나 각료가 참여하는 컨벤션의 경우) 외교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국가나 도시의 국제적 위상, 지명도 및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경제적으로는 컨벤션 인프라 구축, 관광이나 호텔 등 컨벤션 관련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컨벤션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시장개척, 지식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획득 등의 잇점이 있음.
-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최국이나 도시민들의 자부심과 자기 문화에 대한 인식의 고양, 개최국가나 도시민들이 새로운 정보, 지식, 문화 등에 대한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컨벤션산업의 국내외 현황

○ 국가별 컨벤션 개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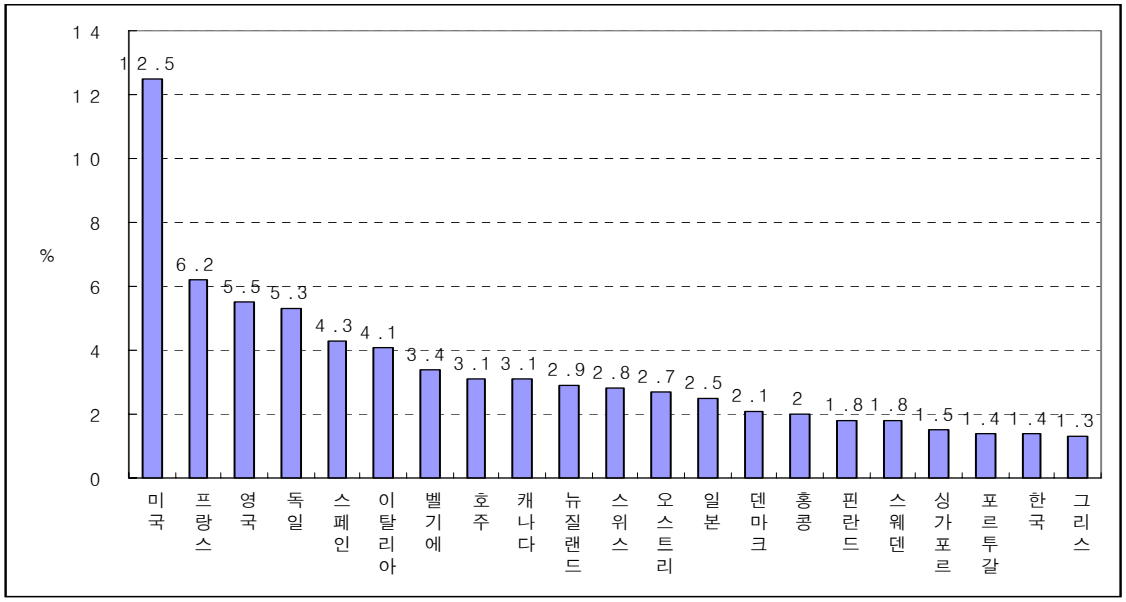
-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통계에 의하면 2002년의 경우 180여개 국가에서 9,124회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5-2002년의 기간동안에 8,802건에서 9,124건으로 증가했음.

[표 1] 세계 컨벤션 개최 추이 (단위: 개,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개최	8,802	8,991	9,273	9,498	9,465	9,433	9,259	9,124
전년대비 증감율	1.8	2.1	3.1	2.4	-0.4	-0.3	-1.9	-1.4

자료: http://www.uia.org
* 국제회의 기준: 참가인원 300명 · 외국인 40% · 참가국 5개국 · 회의기간 3일 이상

- 2002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상위 5개국은 미국 1,145건(12.5%), 프랑스 565건(6.2%), 영국 505건(5.5%), 독일 481건(5.3%), 스페인 392건(4.3%) 순이며, 상위 10개국이 개최한 국제회의는 4,599건(50.4%)으로 전 세계 회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02년 우리나라는 123건(1.4%)을 개최함으로써 세계 2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8%로 일본(18.6%), 중국(14.4%), 싱가포르(10.9%)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2002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점유율

○ 세계 주요도시별 컨벤션 개최현황

- 2002년 도시별 개최건수는 파리 228건(2.5%), 브뤼셀 196건(2.2%), 런던 171건(1.9%), 빈 165건(1.8%), 싱가포르 137건(1.5%) 순이며, 상위 10개 도시의 개최건수는 총 1,474건(6.2%)으로 200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 서울은 2002년도에 81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74위에서 2001년 8위로 급격히 상승하여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한 뒤 순위가 다소 떨어진 결과임.

- 그렇지만 아시아 내에서는 싱가포르(137건)에 이어 서울이 2위를 기록하고 있음.

[표 2] 세계 주요 도시별 컨벤션 개최 추이 (단위: 개)

개최도시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파리	1	228	1	291	1	276	1	247	1	249
브뤼셀	2	196	3	188	2	209	2	187	3	185
런던	3	171	2	199	3	195	4	160	2	200
빈	4	165	4	156	4	157	3	165	4	183
싱가포르	5	137	5	118	5	124	5	140	6	131
코펜하겐	5	137	9	109	10	103	8	113	9	104
바르셀로나	7	129	12	95	14	89	25	64	22	74
제네바	8	112	6	121	9	105	18	74	7	108
베를린	9	105	7	129	7	112	6	136	8	105
시드니	10	94	10	103	6	121	9	106	16	81
암스테르담	11	92	11	78	8	109	7	125	5	137
스톡홀름	12	90	12	89	24	71	20	72	12	98
워싱턴	12	88	14	77	11	100	10	103	11	102
몬트리올	14	87	28	54	27	65	31	53	24	63
서울	15	81	8	100	20	74	24	65	14	88

○ 국내 현황

-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도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은 서울이 182건의 국제회의 개최로 61.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제주도 10.5%, 부산 7.1%, 경북 5.4%, 경기도 3.7%의 순위를 보임(이 집계는 UIA 기준과 달리 외국인 참가 50인 미만의 국제회의도 포함하는 수치임).

- 시·도별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는 서울이 24,241명, 제주도 3,096명, 부산 2,612명, 경북 2,304명 등으로 나타남.

[표 3] 2002년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단위 : 건, %, 명)

시·도	개최건수	비율	총참가자수	외국인참가자수
서울	182	61.5	78,455	24,241
제주도	31	10.5	6,790	3,096
부산	21	7.1	6,703	2,612
대전	6	2.0	800	522
경기	11	3.7	2,733	953
경북	16	5.4	5,929	2,304
강원	6	2.0	1,553	461
인천	2	0.7	70	50
충북	4	1.4	7,869	121
울산	2	0.7	55	38
전북	4	1.4	1,941	328
충남	5	0.7	1,427	159
경남	1	1.4	100	20
대구	2	0.7	302	92
광주	2	0.7	570	23
전남	1	0.3	1,000	80
계	296	100.0	116,297	35,100

자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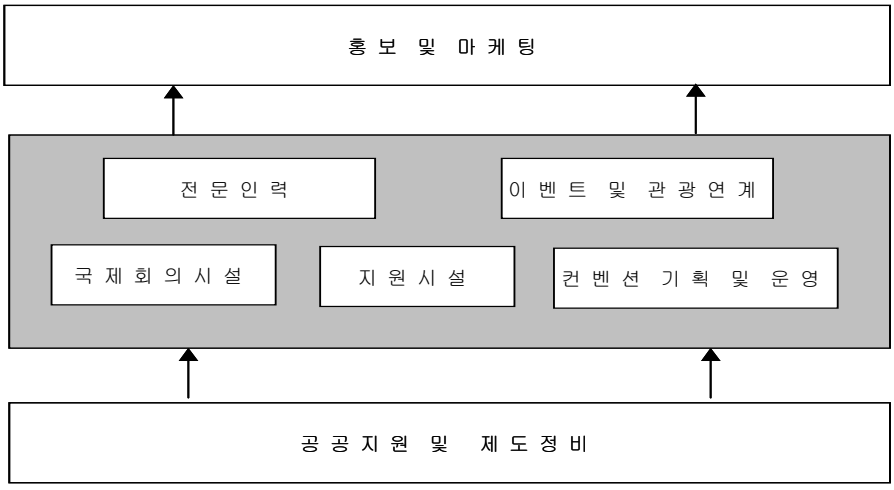
국외 컨벤션산업 육성정책 및 함의

○ 국외 컨벤션산업 육성정책

- 미국의 경우는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 정부나 도시마다 컨벤션 뷰로(convention bureau)와 같은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그 결과 1970년대 15개 도시에 지나지 않던 컨벤션센터가 80년대에는 600개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800개를 상회하고 있음.
- 전시기능 위주에서 출발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1950년대를 지나면서 회의 및 전시, 관련시설을 수용하는 복합적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등 회의산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도시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관광, 문화와 연계된 컨벤션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아시아에서 컨벤션산업이 가장 발달된 일본의 경우는 컨벤션산업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인식하고 1960년대 '국제관광진흥회' 설치, 1986년 '국제컨벤션시티 구상', 1988년 '컨벤션 도시'지정 등 국가적인 컨벤션 진흥전략을 추진·시행해왔음. 이와 함께 개별 도시차원에서도 컨벤션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민·관합동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지원, 유치단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육성책을 지원하고 있음.
- 단일도시로는 아시아에서 컨벤션산업이 가장 발달한 싱가포르는 정부차원에서 컨벤션산업을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확대 차원에서 대규모 컨벤션 복합단지('선텍시티')를 설립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컨벤션 뷰로의 설치, 마케팅 및 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컨벤션산업 육성정책의 함의

- 첫째, 우리나라와는 달리 컨벤션이 지역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회의의 성격이나 멤버가 구성될 뿐 아니라 관광이나 문화와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외국은 지방주도로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음.
- 둘째, 도시정부 주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역 중심의 민·관협력에 의한 추진주체의 설립 및 운영 등의 공공지원 및 제도 기반을 수립해 컨벤션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 셋째, 양질의 국제회의 시설 및 이를 지원하는 부대·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을 공공주도 혹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음.
- 넷째, 전문인력 양성, 이벤트 및 관광과 연계한 컨벤션의 기획 및 운영, 컨벤션 시설 및 컨벤션 개최도시에 대한 체계적 마케팅, 이미지 구축 등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지원하고 있음.



[그림 2] 컨벤션산업의 발전요소

컨벤션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컨벤션산업 육성의 문제점

- 그동안 1996년에 '국제회의산업의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1년 8월 컨벤션 관련 공공기관, 컨벤션 전문시설, 항공사, 컨벤션 관련 업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민·관합의체인 '한국컨벤션협의회'가 발족되고, ASEM 정상회의를 위해 코엑스컨벤션센터가 개관되었으며,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제주 컨벤션센터 등이 오픈되었음.
-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컨벤션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컨벤션산업의 지원이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법률도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과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나뉘어져 있어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 추진에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지원 내용과 지원기준이 상충될 소지가 많음.
- 컨벤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컨벤션 유치지원,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등 컨벤션산업을 육성정책을 중앙(문화관광부)이 주도하다 보니 지역특성에 적절한 컨벤션산업의 육성이 제약되고 있음.
- 그러다 보니 지역의 문화, 관광,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된 컨벤션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인식과 그에 부합되는 시책 개발이 부족함.
- 컨벤션 전문인력,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특성있는 컨벤션 도시의 이미지 구축 등이 부족함.

○ 컨벤션산업 육성정책의 개선방향

■ 중앙정부 차원

- 국가차원의 컨벤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컨벤션의 유치촉진 및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
- 국가차원에서 컨벤션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할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이 연계된 추진기구 및 추진체계 구축.
- 컨벤션산업의 토대가 되는 하드웨어가 공공재적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하드웨어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있는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도시 및 지역별로 경쟁적인 컨벤션 시설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컨벤션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급전망을 파악하여 컨벤션 전문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강화.
- 해외 컨벤션산업의 동향과 시장정보를 수집·제공함과 동시에 해외에 대한 국내 컨벤션산업의 홍보 및 마케팅 및 컨벤션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지원.

■ 서울시 차원

- 파리나 뉴욕, 싱가포르 등 컨벤션 산업에서 서울과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서울의 지역문화와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서울시 컨벤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 '서울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민간과 공공, 기업, 지역사회로 구성되는 '서울 컨벤션 뷰로'를 설치하여 서울시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지원.

- 컨벤션 도시로서의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여론 주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서울의 컨벤션을 마케팅하기 위해 E-mail 및 안내 브로셔 발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마케팅 시책 개발.
- 회의시설 및 회의지원시설 등 컨벤션 기반시설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컨벤션산업의 집적 및 연계적 발전을 위해 '국제회의 전문지구'를 지정.
- 체류 및 관광 컨벤션을 유도·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의 문화, 이벤트,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공급.
- 컨벤션 유치에는 도시의 이미지가 중요한 자산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의 편의시설 및 어메니티가 풍부한 도시환경을 구축.
- 컨벤션 운영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컨벤션 참가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체계, 교통·숙박시설·음식·쇼핑·관광의 국제화 도모.

김현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책연구센터 소장
hhkim@krila.re.kr